

영농인 자격증명서 '농지원부' 사라진다

40년 수작업...농지 소유·이용 정보 오류 빈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축산물도 통합

40년 동안 수작업으로 작성돼온 '농지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작성해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영농인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필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 경영주체별, 지역별로 농업 통계가 더 정확해진다 면 맞춤형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농지원부는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지자체별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쌀 직불금 허위 수령, 농지 매매 때 양도세 부당 감면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

려고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활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정보가 수록됐다. 여기에는 농지 정보뿐 아니라 농가에서 키우는 축산물 종류, 축사 면적, 사육 마릿수 등 정보까지 통합해 실린다. 농업용 면세유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농지원부보다 자료의 신뢰성이 훨씬 높다. 모든 자료가 전산화한 덕에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구성원 연령, 재배규모, 재배품목, 사육 축산물 등 세분화한 통계 정보에 근거해 개별 농가가 요구하는 '맞춤형 농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려면 8년 이상 자료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수년간은 농지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관심 집중 '갤럭시 S4'

삼성전자, 오늘 공개...노동자 인식기술 등 '주목'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14일(현지시간) 공개하는 갤럭시S4가 담을 혁신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의 티저 영상에서 "갤럭시S4는 TV가 컬러가 된 이후 가장 놀랄 만한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작인 갤럭시S3를 내놓음으로써 애플과 맞설 만한 기업이 됐다는 업계 판단인 만큼 또 다른 혁신으로 무장할 갤럭시S4로 독주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갤럭시S4는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공개된 스마트폰 옥타코어 칩이나 4.99인치 AMOLED(AM OLED,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풀HD 화면 등을 세계 최초로 탑재할지가 주목된다. 노동자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페이지를 내리거나 화면을 멈추는 '아이스크롤링'·'아이 포즈' 등도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는 세계 최초의 옥타코어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로(코어)가 8개인 옥타코어 칩은 회로가 4개인 기존의 쿼드코어 제품보다 이론상 속도가 2배 빠르다. 일각에서는 옥타코어 칩의 시스템 안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쿼드의



쿼드코어 칩을 장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 인식기술의 탑재가 미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인치급 제품 중 최초로 애플레드 화면을 장착할 가능성도 크다. 이 역시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신기술이므로 자사 제품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삼모바일 등 해외 IT 소식통들은 애플레드보다 효율을 25% 높인 그린 플레드(Green PHOLED, 녹색 인광유기발광다이오드)를 탑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에서 소프트웨어 역량도 과시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역량에 견줘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간의 평가를 뒤집고 혁신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다. 노동자가 화면 아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는 '아이 스크롤링'이나 동영상 볼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재생이 멈추는 '아이 포즈'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송기진 광주은행장(왼쪽 여섯번째)이 14일 열린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은 뒤 성대서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이경숙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영업정지 끝난 이동사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25일~2013년 1월7일)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

실이 확인된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T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U+) 5억6000만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T 49.2%, KT 48.1%, LGU+ 45.3%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이른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광주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금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은 사회공헌으로 모두의 모습이 되는 우수한 기업, 기관 등을 선정해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모두 27개 기업을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고객과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생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의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해에만 1700여명의 전 임직원이 총2만50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KJB사랑센터' 45호점까지 선정, 어린이와 청소년에 금융교육 장소로 운영하는 KJB금융박물관 건립, 광은장학회 장학금 전달, 사랑의 밤차 무료 급식 봉사 활동,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결식아동돕기 호프데이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 김준원 본부장은 "이번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종합대상 수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광주은행의 공생경영 철학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행복기금, 빚 청산 개별·일괄 병행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 제외...빚 모두 갚아야 신불 기록 삭제

조만간 실시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처리 방식이 병행 추진된다.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라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조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출연된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기준금리 또 동결

5개월째 2.7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다.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졌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긍정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 전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하고자 금리 인하를 유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은 14일 김종수 총재 주

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동결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부 경기지표가 좋지 않지만 미약하나마 경기개선의 기미가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국내 경제를 보면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8.6% 줄었고, 수입액은 10.7% 감소해 201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다. 작년 8월(-2.4%) 이후 첫 감소세다. 서비스업 생산(-0.9%), 소매판매액(-2%), 설비투자(-6.5%) 등도 모두 부진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 및 설비투자는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했다"면서 "2월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나 1월보다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않고 '무제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의 본격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